

## 원장 인사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운데 바울신학원은 목회자 연장교육을 목적으로 2014년 9월 15일에 출범하였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성경공부에 목마른 많은 평신도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바울신학원의 목적인 목회자 연장교육에서 나아가 평신도 신학교육과 목회자 양성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바울신학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르며 개혁주의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인 이세는 물론이고 다민족들의 교회지도자 양성을 통해서 지역교회를 섬기게 하고 아울러 세계선교를 실현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신학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르며, 개혁주의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혁주의신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개혁자 칼빈과 쾰링거의 신학에 바탕을 둔 신학적 체계로서 마틴 부서 (Martin Bucer), 하인리히 불링거 (Heinrich Bullinger), 데오도르 베자 (Theodore Beza) 등과 같은 칼빈주의에 바탕을 둔 신학자들의 신학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입니다. 개혁주의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의와 선을 추구하고 성취할 의지와 능력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계획하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게 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신 택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속에 오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원장 김동수박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하심을 받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칭의를 바탕으로 성령 안에서 점진적 성화를 이루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참된 신자들은 성령님이 힘주시는 것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 환란과 시련을 당해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다가 죽어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그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단들과 거짓선생들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정통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영적 지도자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은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신학원을 개원하게 하시고 뜻을 함께 하는 목사님들과 교수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신학원은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개설되는 학업내용을 소개하고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가르치고 지켜나가는 일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도 여러분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바울신학원장 김동수  
(Doctor of Philosophy in Biblical Hermeneutics)



## 2020년 강좌 안내

바울신학원은 올해 봄, 가을 학기에 걸쳐 아래와 같은 과목들을 개설합니다. 관심있는 그리스도인 누구나 등록 또는 청강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비는 무료입니다

### 여름 특강

2020년 7~8월 중 월요일 7:30PM-9:30PM

### 봄 학기

#### 기독교신앙 원론 I

- 강사: 이길호 목사
- 기간: 2020년 2~6월 5주간
- 매주 월요일 6:30PM-11:00PM
- 강의내용: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

#### 중급 헬라이어

- 강사: 김동수 박사
- 기간 2020년 4~6월 11주간
- 매주 일요일 7:00PM-9:00PM
- 강의내용:  
단축동사, 재귀 대명사, 제 3 변화 명사 및 형용사, 수사, 전치사구, 의문/ 부정/ 관계대명사, 명령법, 현재 완료 시제, 형용사의 비교급,  $\delta\acute{\iota}\delta\omega\mu\iota$  변화

### 가을 학기

#### 청교도 신앙

- 강사: 이윤석 박사
- 기간: 2020년 9~12월 10주간
- 매주 월요일 7:30PM-9:30PM

#### 헬라이어 공관복음 읽기

- 강사: 김동수 박사
- 기간 2020년 9~12월 10주간
- 매주 일요일 7:00PM-9:00PM

#### 강의 장소

뉴저지초대교회 포트리 선교관  
1355 15<sup>th</sup> St. 2<sup>nd</sup> FL, Fort Lee, NJ

## FOCUS: 모세오경 신학

**우**리가 성경의 첫 부분을 읽을 때 성경 전체의 큰 의도를 생각하고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하나님의 크신 의도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셨다(누가 24:27). “모세의 율법 [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상기시키셨다 (누가 24:44). 우리는 구약성경 본문 자체도 제대로 읽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구약의 모세 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을 읽으셨던 의도와 동일하게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 모세 오경의 저자와 문서설 등의 문제들을 차치하고, 영감된 말씀 자체의 의미와 함께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 읽히는 오경의 의미를 동시에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 1. 그러면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큰 의도를 어떻게 축약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제목으로 주셨다. 주기도와 복음서의 시작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고(마가 1 장) 선포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여기서 ‘때가 찼다’ 는 말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구약의 모세 오경을 읽으셨던 의도와 동일하게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일찍부터 말씀하신



이윤석 목사  
부르클린 제일교회  
담임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찍이 말씀하셨던 ‘때’ 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모세오경 신학인 것이다.

### 2.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할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고 하셨습니다(창 1:28). 또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인간을 두셨다. 창세기 1:27-28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고, 에덴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라였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는 것은 국토(영토)를 잘 관리하라는 것이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는 것은 주권(국권)을 행사하라는 것이기에,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의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 3.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었는가?

성경의 첫 두장(창 1, 2 장)은 아직 죄가 등장하지 않는 장들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하셔서 그들의 창조주로 섬김을 받기 원하셨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부여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택하지 않는 죄를 범하였고, 그들 스스로 주인이 되거나 다른 신을 주인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 인간은 에덴을 떠나 나오면서 스스로 부족한 존재가 되었으며, 그것을 채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인간은 문화와 문명을 이루었다. 그러나 인간이 이룬 그것은 여전히 부족함의 문화이고 문명이며, 결코 인간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해(害)가 되는 것들이다. 이것이 에덴을 버린 아담, 아버지를 떠난 탕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모습이다.

#### 4.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 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심을 말씀하신다(레 26:12).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 사실을 보여준다. 인간은 무화과 잎의 옷의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죽옷으로 대체하셨다. 창세기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누가 설계하였는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 때 누가 설계하였는가? 인간의 방법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방법과 의도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 5.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항상 그에게 순종하게 위해 두신 것이다. 선악과 나무를 두고 그것만은 따먹지 말라고 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셨다 (창 2:16-17). 그러므로 선악과는 자기 중심성의 발동을 막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주인이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3-11 장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 스스로 자기 문화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에덴에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파괴되었다. 이 죄란 결국 자기중심성의 본성을 갖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본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이룸으로 어리석은 인간을 에덴의 풍성함으로 다시 초청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불러들이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과 질서와 문화를 만드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창 12 장), 그와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고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창 15, 17 장),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보다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다(창 22 장). 그러나 이 언약은 아담 때에서부터 벌써 내려주신 것이었다. 즉,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행위의 언약으로 주셨으며(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죄를 범한 아담에게 언약을 확인하시고(창 3:15),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자(예수)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셨으며(창 3:15), 이는 죄로 인해 자격없는 인간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언약이 되었다.

#### 6. 모세오경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어떤 구조 속에서 말하고 있는가?

모세 오경은 바로 이 첫 번째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창세기는 민족들과의 분리와 축복과 자손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과 배교와 역병, 바로와 마술사들, 장자와 레위인들을 다룬다. 레위기는 제사와 정결과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이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과 배교와 역병, 발락과 발람, 장자와 레위인을 다룬다. 신명기는 민족들과 분리, 축복과 자손과 땅 이야기를 언급 한다. 이 5권의 성경을 보면 레위기를 중심으로 각각 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창세기가 프롤로그(prologue)라면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나 성막을 세우는 것이며, 레위기는 성막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민수기에서는 성막이 봉헌되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신명기는 에필로그(epilogue)이다. 중간에 위치한 레위기는 또한 성막 예배와 거룩한 삶의 묘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죄와(1-15 장) 대속죄일(심판과 정화)(16 장), 후반에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한 성결(거룩함)을 다루고 있다(17-27 장).

모든 율법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이다. 레위기에서 보는 바와 같은 거룩한 삶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주재, 곧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풍성한 기쁨의 삶이라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이다. 출애굽기 19 장(3-6 절)과 레위기 26 장(3-13 절)은 계속되는 성경의 주제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그의 통치 아래 있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며,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됨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다.

### 7. 모세오경은 성경전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모세오경은 언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인간과 피로써 맺은 약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언약의 공식(Covenantal formula)은 성경전체를 통하여 나타난다. 특별히 모세오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명확히 말씀하고 계신다. 창세기 15 장과 17 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변치 않는

약속으로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다 (17:7). 출애굽기에서는 “열국 중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리라” 하시며 (6:6-7, 19:4-6), 레위기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로라” 하신다 (26:13). 신명기 4:20 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 이라고 하며,

"모세오경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시작이며 핵심으로서 모두가 가장 믿고 순종해야 할 언약의 말씀"

29:1 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임마누엘) 다스리신다는 것을 신약에서 점점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고후 6:16). 새 언약이 완성됨에 있어서 임마누엘의 원리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아들로 인간의 육신에 거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요한 1:14).



**결**론으로, 모세 오경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시작이며 핵심으로서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가 가장 믿고 순종 해야 할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말 2:5).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인용하시고 나타내신 말씀들과 신약의 안목을 가지고 다시 깊이 읽어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고 깊은 내용들을 더 밝히 깨닫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바울신학원 강의 수강 소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2019년 2월초 바울신학원 강좌를 처음 듣게 되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공부 클래스에서는 좀처럼 들어볼 수 없었던 한국 교회사, 초급 헬라이어 I & II 및 모세 오경을 수강하였다.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신학 대학원 수준의 강의를 학비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었던 지난 해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해였다.

바쁜 사역 일정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어 먼 거리를 달려와 많지 않은 수강생들을 위해 강의를 해주신 목사님과 교수님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를 드린다. 참 진리에 갈급한 심령으로 분주한 삶 속에서 지친 심신을 이끌고 강의에 참여하는 동료 수강생들과의 교제는 이민생활에서 지친 영육에 시원한 사이다 같은 청량제로서, 덤으로 누린 축복이었다.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면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오직 어둠만이 짙었던 광야시대를 거치며 시대의 비극을 겪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빛으로 살아간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없이 감사하며 도전을 받았다. 모세오경에서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며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점증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오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배움으로써 성경 전체의 맥을 짚어볼 수 있었다. 헬라이어 수강을 한 계기는, 세계의 다양한 언어 가운데서도 왜 헬라이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호기심과 아울러 신학생이 아니면 대할 수 없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여겼던 것이다. 같은 어법 구조라도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헬라이어의 독특한 특성을 알고 말씀을 대할 때, 경이로움과 함께 한층 더 겸손해진 마음을 갖게 되었다.

바울신학원 강좌를 통해서, 말씀이 주는 형언할 수 없는 그 넓이와 깊이와 달콤함에 더욱 매료되었다. 또한 어느덧 반백세를 넘긴 즈음에, 나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하여 품으신 사랑과 소망에 대해



확신에 확신을 더하게 되었으며, 나의 믿음이 한층 견고해지고 성장하는데 크나큰 도움을 입었다.

바울신학원이 제공하는 정규강의 과목 수강 및 여러 주제의 특강을 통해, 무엇보다 말씀의 토대위에 세워진 바른 성경적 신앙관과 세계관, 그리고 삶의 조화가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 종교적 다원주의,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 가고 있다. 이런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신학원에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소망해 본다.

김명자 집사

"말씀의 토대위에 세워진 바른 성경적 신앙관과 세계관, 그리고 삶의 조화가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다."



우리가 읽는 성경번역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이어 신약성경에서 소유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로마서 3:22 말씀중 “디아 피스테오우스 이예수 크리스투”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개역개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란 문구가 대표적이다. 듀크대학교의 리차드 헤이즈 교수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소유격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를 의미상으로 주격인 것으로 보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믿음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문법상 맞는 해석처럼 보인다. 이를 따라서 New English Translation(NET),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ISV), 다비성경, 웨슬리신약성경 등은 이 문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명사 ‘피스티스(πίστις)’ 는 ‘믿음’ 이 아니라 ‘신실함’ 이라고 번역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 실제로 NET나 ISV는 명사 ‘믿음’ 을 ‘신실함’ 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면 2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뜻으로 된다. 언뜻 보면 이 번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생각될 지도 모르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이 해석은 보편구원론자들이 지지하는 해석으로서 큰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지신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로 와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해석의 또 다른 오류는 문자적 해석에 집착하는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 5:18의 “판타스 안쓰로우푸스” (πάντας ἀνθρώπους, 모든 사람)를 문자적으로 ‘전 인류’ 를 가리킨다고 이해하며 보편구원론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사람” 은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 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절의 문맥상 맞는 해석임이 자명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3:22에서 “디아 피스테오우스 이예수 크리스투”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도 신약 전체의 문맥에서 이해해야 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16에도 똑같은 문구를 쓰고 있다. 바울은 이 절에서 “디아 피스테오우스 이예수 크리스투” 문구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점에서 바울은 독자들이 “디아 피스테오우스 이예수 크리스투” 에서 소유격으로 표현된 “이예수 크리스투” 를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이해하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바울은 로마서 3:22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른다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 사실, 신약의 어떤 구절도 ‘예수’ 가 ‘믿음’ 의 주어로 표현된 곳은 없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신자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인 것이다. 이 점에서 보편구원론이 주장하는 헬라이어성경상의 문법적인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없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헬라이어 성경 번역에 있어서 지나치게 문법과 문자적 의미에 집착한 해석 오류가 잘못된 교리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해석에 있어서 원어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여 특정 문구를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해석의 원리로서 성경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Scripture interprets Scripture) 된다고 가르쳤다. 이 원칙은 우리시대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성경 해석의 원칙이다.

김동수 박사 (성경해석학)



## 뉴스레터 창간을 축하하며

오늘날 우리는 지난 2000 년간 기독교의 요람이었던 유럽이 교회의 무덤으로 변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거대한 Christendom 이 무너진 폐허 위에 우리 자신이 서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서양식 선교는 실패하였음이 여의없이 드러났으며, 이제 우리 자신의 신학과 선교학이 요청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선교대상들은 그들의 자손을 어머니의 탕속에서부터 기독교에 대한 증오와 복수의 교의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Being Christian 으로 교육하는 데에 실패하였음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이 DNA 에 새겨진 그들을 선교하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결의를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들의 재교육과 평신도 교육 강화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선교를 정체성으로 하는 교회로 재건해야 합니다. 선교는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부여 받아야 가능합니다. 말씀의 생명샘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생명샘은 변함이 없으나 생명수는 시대에 따라 신학이라는 새로운 그릇으로 운반되고 전파됩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키 위해 김동수박사를 중심으로 2014 년 9 월부터 특정 교단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목회자 연장교육과 평신도 신학교육에 힘을

쏟아온 바울신학원에 치하를 드립니다. 갈급한 주님의 군사들에게 계속 말씀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수원지가 될 것을 확신하며, 교회의 눈을 뜨게 하는 실로암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기대합니다. 신학은 넘쳐나지만 우리에게 올곧은 방향을 제시할 신학자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울신학원의 뉴스레터 창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바울신학원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을 믿습니다.

최휘웅 (뉴저지초대교회 장로)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Saint Paul Academy of Theology (PAT) for publishing their first newsletter. I sincerely hope that God would continue to grow PAT and use it strongly for His Kingdom and for the sake of His Holy Name. I pray that God would greatly bless Dr. Dongsu Kim and all the other hard working ministers, teachers, co-workers and friends that contribute to PAT, who offer their dedication and hard work to serve the Lord. Good, sound theology is dwindling in the midst of today's secular culture and society, and PAT offers a wonderful resource in which anyone can come and learn more about God's Word from smart, competent, and faithful servants who love the Lord. I hope God would use PAT to bring God's Word and sound doctrinal teachings to many ears and hearts so that we would grow as God's children, spread the gospel, and glorify God.

Rev. Luke C. Kim  
(Director of Education at Bucks County  
Presbyterian Church, Pennsylvania)

## 2019년 후원자

### <기관후원>

뉴저지초대교회, 부르클린제일교회,  
뉴욕성실장로교회, 엘림선교회

### <개인후원>

최휘웅, 김동수, 김용성, 김봉훈, 이휘봉,  
김명자, 박경주, 이화수, 정지은, 이윤희,  
이규재, 이태수, 연봉원, 장 범, 김유강,  
이철희

### <후원이사>

최휘웅 장로 (뉴저지초대교회)  
김봉훈 장로 (분당지구촌교회)  
김용성 목사 (벅스카운티장로교회)

## 후원 방법

### 수표

- 수취인: PAT
- 보내실 곳: 11 Ford Court, Monroe, NY 10950

### 온라인 송금

- 은행: TD Bank
- Account #: 4302589720
- Routing #: 031201360
- 계좌명: Saint Paul Academy of Theology

### PayPal

- www.patforjesus.com

## 편집위원

박경주, 이범, 장태석, 김명자

## 학사활동



특강: 하나님나라와 크리스천의 삶 (강사: 심상법 박사). 2019. 7. 15.



특강: 하나님의 안식과 인간의 세계관 (강사: 김인환 박사). 2019. 7. 8.



초급헬라이어 수업 (강사: 김동수 박사)  
2019. 봄, 가을학기



한국교회사(강사: 석태준박사)  
2019. 봄학기



초급헬라어 수업 (강사: 김동수박사)  
2019. 봄, 가을학기



바울신학원 한국교회사(2019년 5월)

한국교회사 (강사: 석태준박사)  
종강기념. 2019. 5. 27.



특강: 다원주의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강사: 강영안박사) 2019. 8. 19.



특강: 그리스도인의 행복관 (강사: 박은호교수)  
2019. 7. 22.



초급헬라어 (강사: 김동수박사)  
종강기념. 2019. 6. 16.

<끝>